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 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백성(진)중에 있는 죄 II (여호수아 7:1~8:29)

이종윤 원로목사

2. 아간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냈다

전쟁 시 이긴 자는 진 자의 소유를 빼앗아 간다. 아간은 이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분명 아간은 이긴 자의 군인이다. 그의 같은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의 정복자가 아니었다. 여리고의 정복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군대에 주셨다.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사르고 은, 금, 동, 철 기구는 여호와와 집 공간에 두었다.

아간이 도적질한 것은 두 종류였다. 은과 금, 즉 하나님의 집에 바쳐진 물질을 도적질했고 바벨론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도적질했다. 그는 사치를 꿈꾼 것이다. 아간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결국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신 제 10계명을 범한 것이다.

3. 아간은 도적질했다

불만과 탐욕은 보이지 않는 죄다. 그러나 도적질은 거짓을 무기로 한 보이는 죄다. 마음 속에 숨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악한 열매로 나타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III. 심판과 축복

어느 날 비밀히 지은 죄가 마지막 심판 날에 크게 밝혀질 것이다. 아간의 죄는 곧 밝혀졌다. 열 두 지파 대표들이 나오고 다시 족속 중에서 뽑힌 자, 그 중에 뽑힌 가족, 그 가족 중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 삼디의 가족, 마침내 아간이 뽑혔다. 그는 여호수아 앞에 죄를 토설케 됐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 도적질한 것을 회소한 후 그 자녀들을 포함한 온 가족과 소유물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죽여 불사르고 돌무덤을 만들었다.

그 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이 성을 점령케 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초자연적 하나님 임재에 언약의 계속성을 강조했다. 즉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내린다는 언약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성결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확실하지 않은 말, 들은 것에 크게 보태어 사실인 양 유포하는 일 따위로 거짓말을 해서 교회를 허는 이들이 있다.

결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를 몰리치거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에 있다.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듯 오늘도 자기 백성의 죄는 무섭게 심판하신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고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호2:6 - 7).

2.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불순종의 자식들의 필요를 박탈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호2:9).

3.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아간과 아골은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아간이 죽은 곳을 아골이라 불렀다. 아골은 고통 또는 재앙이라는 뜻이다. 아간은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왔다. 그리고 결국 그 재앙을 자신이 받았다.

여호수아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고 했다(수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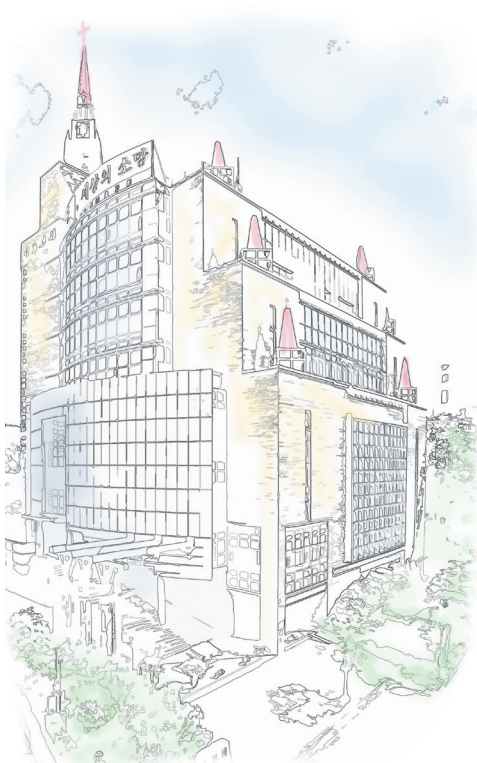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다. 좌절과 타락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심판, 곧 죽음이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 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호2:14 - 15).

죄가 심판 받는다는 것은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진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다.

누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골의 고통을 그 몸에 지셨고 우리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가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죽으셨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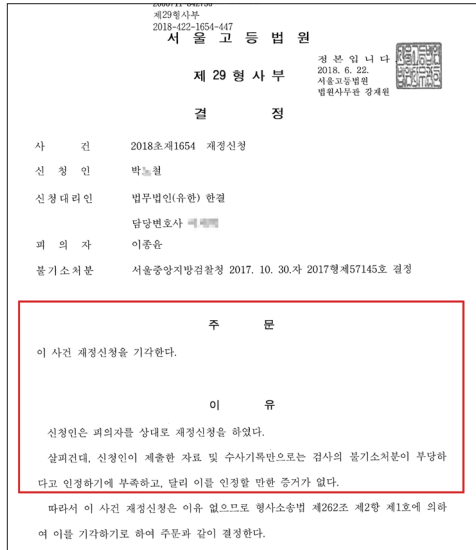
오늘은 맥추감사절

I · II · III 부 예배 - 성찬식 / 맥추감사헌금 드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동안 베풀어 주

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오늘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이종윤 원로목사 상대 업무방해 고소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월 과반수 당회원이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청빙하여 개최한 임시당회와 같은 해 2월 관할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대리 당회장으로 변경하려던 건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 본인이 직접 이종윤 원로목사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 12월 1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박노철 목사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신청을 한 사건에 관한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결정문에서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는 부족하다며 위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안식년 본안판결에서 박노철 목사가 2017년 안식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당시 안식년이 개시된 박노철 목사를 대신하여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 직무를 수행한 행위가 적법한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제29형사부)은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재정신청사건(2018초재1654)에 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는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이 개시된 2017년 1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

오늘 찬양예배시

6월 6일(수) "교회 소생과 부흥 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이라는 주제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홍해작전이 6월 25일(월), 은혜 중에 종전하

였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2018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를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드린다.

한편 홍해작전 본부는 2018 홍해작전 일환으로 '홍해작전' 4행시, '소생과 부흥' 5행시, 영문5행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홍해작전 수상자 명단 -

- 장년부 4행시**
 - 1등 : 오충례 권사
 - 2등 : 이현정 집사
 - 3등 : 임대중 집사
- 장년부 5행시**
 - 1등 : 최규초 집사
- 교육부서 개근상**
 - 유년부 : 임하람 임하울 우정균 조건우
 - 초등부 : 조연우 정은재
 - 중등부 : 정은지 장해윤
- 교육부서 출석우수학생(5회 이상)**
 - 영아부 : 이연서 오희엘 최아준
 - 유아부 : 한세희
 - 유치부 : 김하운 우정서
 - 유년부 : 김하진 정우성 한세아 한예승 배은준 오선아 오승아 배은찬 김종현
 - 초등부 : 이인애 이윤의 정우형 한예준 김은송 김중혁 최시원 장유정
 - 중등부 : 송민주 우정연 임하린 전 민 장유선
 - 고등부 : 옥유진 김재령 장하랄 장해라
- 교육부서 출석비금학생(1~4회)**
 - 영아부 : 김서환
 - 유아부 : 김이환 유다연 최무건 유하민 정혜윤

- 최은성 김재경 조예진 박준하
- 유치부 : 김하빈 김하준 김재윤 주하연
- 유년부 : 김연우 유하연 윤서진 박인성 오유민 이시우 최주하 손재원 김시연 주하은
- 초등부 : 김예준 오유나 박종환 이시연
- 중등부 : 김지호 최수용 정예흔 유동일 김지석 장하늘 최의연
- 고등부 : 김은빈 김정현 이상민 송민경
- 교육부서 4행시 5행시**
 - 유년부 : 손재원 김하준 김서연 이시우
 - 초등부 : 이윤의 김은송 김도윤 박종환 우정균
 - 중등부 : 노재현 정은지 최수용 신유우 유동일
 - 고등부 : 송민경 장해라 김재령 송은희 소 준
 - 영어예배부 : 한예승 오유나
 - 사랑부 : 최지훈
- 교육부서 글짓기**
 - 고등부 : 옥유진
 - 초등부 : 최시원 한예준 이인애
- 교육부서 그림그리기**
 - 유치부 : 이윤후 김하운 임시우 주하연 윤석민
 - 유년부 : 노윤 조예원 오선아 유하연
 - 초등부 : 김은송 오유민 조건우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종욱 박승기 김은순 오유식/이봉규 이미경 신모란 안미경 권소희 조서현/최진이 박광식 송재현/선순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2018 하계 농어촌전도대 모집

2018년 7월 15일(주)~19일(목)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교회는 혼란한 상황에도 전도를 멈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8 하계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전도대원을 모집한다.

농어촌 전도 일시는 2018년 7월 15일(주)부터 19일(목)까지이며 장소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중앙교회이다. 국내 전도에서 활동할 내용은 대진중앙교회의 성경학교, 지역민을 대상으로하는 의료선교, 이·미용, 전도, 전도대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 봉사 등이다. 전도기간이 짧고 고온에 힘들더라도 주님의 대사명이며 우리 서울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만민에게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7월 8일(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3:9-10)

맥추감사절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렸습니다(출23, 34장, 레23장, 신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

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편집부)

2018 홍해작전 - 종전예배

백성의 승리를 도운 갈렙처럼

6.25(월) / (민 13:25-33) : 이종윤 원로목사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를 돕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혹 갈렙의 이름을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결코 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그들을 두려워 하지 말라”(민 14:9)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질병 앞에서 전쟁의 소문 앞에서, 자녀들의 미래 문제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이식을 갖자고 합니다.

1. 과거의 하나님의 성실성을 기억하라

갈렙이 정탐하였던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곳은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있는 곳이고 유대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그렇기에 갈렙은 더욱더 헤브론을 정복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매우 회의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두 개의 대립된 의견을 놓고 백성들은 좌충우돌하며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민 14:1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건만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 현재에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받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민 14:9). 하나님은 지금도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위로와 축복을 주셨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교회가 이 시대에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붙잡고 계신다

갈렙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열 두 아들을 낳았고, 그 열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부터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도 미래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가 확실해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며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 1:4).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평안(Peace with God)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평안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Peace of God)을 누리게 됩니다.

2018년 홍해작전을 종전하며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광태 집사 (2018 흥해작전 차장)

『교회 소생과 부흥』을 주제로 6월6일부터 25일 까지 진행된 2018년 흥해작전이 대 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흥해작전 참모진들은 첫 모임을 5월27일(주일)부터 가지며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철 목사님 오치열 장로님 이하 기획참모부, 예배참모부, 동원참모부, 홍보참모부, 봉사참모부, 차량참모부로 역할을 분담하고 예하 조직과 업무를 세분화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어려울 만큼 준비의 과정도 그리 수월한 것 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금년 흥해작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각자의 마음속 결의는 흥

해작전 내내 새벽의 피곤함이라곤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언제나 활기가 넘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흥해작전 참모진 뿐 만 아니라 흥해작전에 동참한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히 주님의 구원을 바랬던 흥해작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 이스라엘의 간절한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악한 무리들이 뒤쫓아오고 구부러진 진리가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있는 막막한 상황에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던 흥해작전 이었습니다.

어린이이 어르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회복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마음의 흥해를 건너고 있을 때,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년본안 소송 1심 승소”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안식년 본안 소송 승소”라는 값진 응답뿐 아니라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더 뜻깊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서울교회의 역사와 서울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흘려야 했던 피와 땀과 정성과 희생을 알게 해 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교회 교인 모두는 주님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2018년 흥해작전을 통해 개개인으로는 물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 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2018 흥해작전

역사와 전통은 하루 아침에 이루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명구 집사(2018 흥해작전 기획참모)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며 우리들을 인도 하심으로 우리들은 “교회의 소생과 부흥”이라는 주제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는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국가와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린 흥해작전은 우리의 영혼을 가로 막고 있는 흥해를 건너므로 그 어느때 보다도 더한 가슴 벅찬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졸린 눈을 하고 아빠 엄마를 따라 흥해작전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서울교회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18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에 평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목사님과 서울교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서창원 목사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정신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이종윤 원로 목사님이 함께 하심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18 흥해작전은 매일 성도님들의 간식을 챙겨주시는 권사회의 헌신이 있기에 더욱 빛이 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서울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얼굴을 들 수 없었던 부끄러움만 한 소란으로 인해 특별새벽기도회 출석인원이 1/3 수준으로 격감하는 서글프기만 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히스기야가 앗수르 산헤립의 조롱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살려주십시오”라며 엎드려 기도를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서울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여호와와의 이름과 여호와와의 공의를 팔며 평온하기만 하던 서울교회를 설교표절과 재정비리의 온상으로 몰면서, 불만 교우들을 규합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무리들로부터 “교회를 소생시켜 주시옵고 살려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들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박노철은 2018년 1.1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판결”을 내려주시므로 우리들 눈앞에 다가온 “교회의 소생과 부흥”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드릴 뿐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흥해작전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992년에 첫 번째 흥해작전을 시행했으니 2018년인 올해 흥해작전은 어느덧 27번째가 됨으로 인해 이는 서울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서울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 확연히 자리 잡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교회는 교회 창립 때부터

진행해 온 전통적인 수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①김치세미나(5~6월) ②흥해작전(6월) ③목회자세미나(봄, 가을) ④사명자대회(11월)를 서울교회 4대 행사라고 했으며,

여기에 ⑤한마음 체육대회(5월) ⑥교구찬양대회(5월~7월) ⑦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7~8월) ⑧사랑의 바자(9월) ⑨비전2020(군선교, 연중)까지 포함하면 9대 행사로서 1년 내내 우리 서울교회는 북적거리며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많은 하나님 사역을 우리들에게 감당하게 하심에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가 좋았던 시절” 이였음을 우리 서울교회가 병들어 신음하는 지금에서야 느끼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목놓아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먼 삼손의 심정으로 여호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을 내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서울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지킴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서원해 드린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7월 7일(토) / 서울교회

사랑부(부장 : 이강인 집사) 여름 성경학교가 7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엡6:11)』 주제로 서울교회 사랑부실(102호)에서 열린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에게 집중하며 교회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도 교역자 심우진 협동목사를 중심으로 부장단과 교사들은 한 마음이 되어 혼란한 시기에 흑사라도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알차고 재미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홍해작전! 소생과 부흥!

2018 상반기 간식 및 찬조

교회가 어려울때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손채원(유년부)	김서연(유년부)	김도윤(초등부)
홍 홍해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해 해 뜨기 전에 갔습니다. 작 작심했습니다. 전 전부 참석하기로	홍 홍해작전은 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작 작전을 펼치는 것 전 "전 힘들어요. 그래도 간다!"	홍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보지 못했지만 해 해가 갈수록 믿음은 깊어만 갑니다. 작 작은 두 손 모아 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1월 7일 : 최영란 권사 정희순 권사
- 1월 14일 : 최영경 권사
- 1월 22일 : 박길자 권사 박수옥 권사 이영자 권사
- 1월 28일 : 정경자 권사 신동기 권사 조숙자 권사
유명석 권사 박길자 권사 김정두 권사
- 2월 4일 : 김순진 집사
- 2월 11일 : 조영자 권사 남태영 권사 김정제 권사
박길자 권사
- 2월 27일 : 김정열 권사
- 2월 28일 : 이순형 권사
- 3월 4일 : 이영희 권사 정승자 권사 박길자 권사
이옥수 권사 최종희 권사
- 3월 25일 : 박이선 권사 서영희 권사 이명아 권사
박민숙 집사
- 3월 26일 : 심상필 권사
- 4월 8일 : 유명석 권사
- 4월 13일 : 황정임 권사
- 4월 15일 : 정유선 권사 이소명 집사 최원자 권사
박길자 권사 김동진(박진주)집사
- 5월 6일 : 박진주 집사
- 5월 27일 : 유명석 권사 박길자 권사
- 6월 10일 : 정경자 권사
- 6월 14일 : 김명화 권사
- 6월 20일 : 광숙 권사
- 6월 24일 : 무명1인 조정옥 권사 정진영 집사
박길자 권사
- 6월 27일 : 수요일예배 저녁식사 - 광숙 권사

노재현(중등부)

소 소망과 사랑이 공존하던 우리 교회
생 생명의 빛조차 희미해졌네. 하나님의 1대 1
과 과외를 통해 다시 일어나
부 부흥하라
홍 흥미진진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뭐든지 이뤄지리라

송민경(고등부)

홍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해 해마다 홍해처럼 늘어나는 기도제목들 앞에
작 작정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 드립니다.
전 전지 전능하신 주님, 함께 홍해를 동행해 주세요

오충례 권사

홍 홍역을 앓고 있는 내 사랑 서울교회여!
해 해와 달을 중천에 머물게 하시고
작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전 전심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소리 높여 개선을 부르자

이현정 집사

홍 홍해를 앞두고
해 해같이 빛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작 작은 두 손 간절히 모아
전 전심으로 기도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한예승(유년부)

S Seoul church was wonderful because there was no violence
C Church must be holy place where we pray, sing and meet our God and Jesus.
R Remember that Jesus loves us.
A All of people should pray to holy Jesus and God
R Refix our church to be holy and wonderful again.

오유나(초등부)

S Sacrifice that our Lord made for our sin.
C Christ help me through this long long journey
R Restart for new clean life
A Apologize for what done wrong
R Recover our scars and hare new life



김은송 (초등부)

등 정

■ 금주의 식사: 닭볶음
 홍일성 장로 이명아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금년도 상반기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찬에 임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 영아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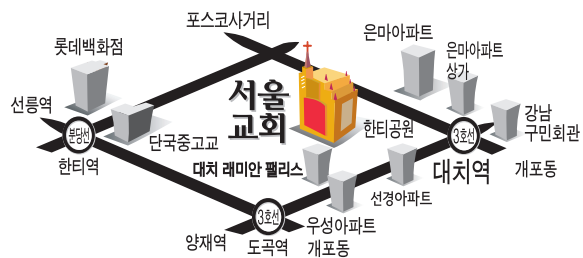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1일	주일	시 90-96		창 1-6	
7월2일	월	시 97-103		창 7-13	
7월3일	화	시 104-105		창 14-19	
7월4일	수	시 106-107		창 20-24	
7월5일	목	시 108-112		창 25-30	
7월6일	금	시 113-118		창 31-34	
7월7일	토	시 119:1-71		창 35-3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